

2026년 4월호(제 256호)

소중한사람들

만남

꽃과 나비가 만나면
열매를 만든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면
숲을 만들고

너와 내가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

슬픔이 위로로
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원망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나는 너를 위하여 살고
너는 나를 위하여 사는
둘이 믿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세상을 이룬다.

시/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고자질

남편과 나는 목회자로서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른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성도들의 말이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말과 같았다.

성도들이 나에게 “사모님, 머리가 길어서 답답해 보여요” 한마디만 하면 나는 손살같이 달려가 머리를 잘랐다.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가 짧아서 촌스러워 보인다”며 편잔을 준다.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도님 집에서 심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어떤 일부터 우선으로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했다.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는 분명 성도들이 첫 번째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한 남편의 아내다. 둘째, 아이들의 어머니다. 셋째, 너는 부모님의 자녀다. 넷째, 너는 목사의 사모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목회 사역을 해야 하는 나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자질’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 넓은 몸매 바지를 입고 교회의 강대상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나에게 스트레스 준 ○○○ 권사를 주님이 다리 하나 빼게 해주세요. 남편이 무례하게 말했는데 입 언저리에 종기가 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일러바치라는 것이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지 복을 주라는 등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멋지게 혼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일러대는 것이다.

나는 매일 밤 고자질하기에 바빴다. 그랬더니 낮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속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잘난 체하고 있지만 어디 두고 봐! 오늘 밤 고자질의 상대는 바로 너다’라고 생각하니 우습고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루는 ‘심술꾸러기 ○○○ 집사의 발을 빼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온 것이다. 어찌 된 일이나 물었더니 어젯밤 계단에서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단다.

“아이쿠! 주님, 저의 요구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너무 과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다녀온 사람처럼 밤이 기다려지고 목회 사역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6개월 쯤 지나고 나니 고자질을 하지 않으면 웬지 개운치 않아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쭉 펴고 앉았던 다리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고자질하던 나의 입은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되었다.

“사모가 주님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 모래알 같은 문제가 바윗덩어리가 되어 돌아온다. 주님께 고자질하면 바윗덩어리 같은 문제도 모래알이 되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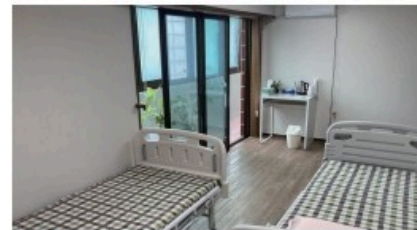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수없이 많은 바윗덩어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자질로 인해 모래알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밤마다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목회 사역을 두려워하는 후배 사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걱정 말아요! 목회 사역 별것 아니에요. 결코 힘들지 않아요. 밤마다 한 시간씩만 고자질을 잘하면 다 해결 돼요.”

햇병아리 목회 초년병이었던 나는 어느덧 목회의 현장에서 삼십 년 동안 일하고 있는 야전 노장이 되었다.

글/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서울역 암 환우 쉼터(Shelter) 이용안내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려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제가 가진 은사는 아마 잘하던 못하던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력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렇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감되신 후 제가 들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회를 많은 사람이 자주 가게 되면 가석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빠른 석방을 위해 제가 한 일은 매우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어머니가 수감되신 이후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많은 어머니의 지인 분들이 저와 함께 접견을 가셨었으니 혹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면 어머니의 가석방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가석방까지 기다리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특별 사면 혹은 재심 청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재심 청구를 끌어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접견실 유리 너머에서나 봐야 하는 그 답답함만큼이나, 사면을 위한 길을 연다는 것은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바늘귀만 한 작은 입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리트릿 센터에 오셨던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25년을 한결같이 재소자 사역을 해왔는데 혹시 교체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재 소망교도소 이사장이며 서울구치소에서 재소자 사역을 하시는 안현수 목사님(수지 광명교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현수 목사님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현수 목사님과 3월 23일에 서울구치소 예배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 구치소에 어머니가 계실 때 어머니 접견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던 "온미정"이라는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안현수 목사님을 주차장에서 만나 해장국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랑 오랜 시간 함께 재소자 사역을 해오신 정대철 박사도 같이 갑니다."

저는 정대철 박사라는 분이 누군지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집 저 안쪽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며 안 목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어떤 낯익은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정대철 박사가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헌정회장 정대철"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정대철 회장은 민주당 원로로서 4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6년을 선고받고 2005년 2월에 구속된 후 동년 8월에 특사로 사면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듯합니다. 저는 그저 안현수 목사님을 따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던 것이 다였지만, 그곳에서 안현수 목사님과 늘 함께하셨던 정대철 회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분들 곁에 끼어든 작은 사람이니 사실 정대철 회장님께 어머니 이야기는 꺼낼수도 없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 추운 계절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기까지 고생하셨던 서울구치소 안으로 이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접견인이 아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치소 내부 예배처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 분위기도 너무 아늑하고 아담한 예배실이 나왔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가 앉아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셨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던 감정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었습니다.

"성일아, 너는 지난주일 예배 잘 드렸니? 나도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소자들은 강대상을 보고 앉아 있었고, 정대철 회장과 나는 재소자를 바라보는 쪽으로 옆에 세로로 배치된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재소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안현수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과 정대철 회장의 따뜻한 격려사가 끝나고, 저에게 축도를 하기 전 잠시 소개하고 축도하러 하셔서 강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월 22일에 이곳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던, 11년간 재판하며 고군분투하던 유정옥 사모의 아들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688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재소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소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만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재소자들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쯤 앉아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옷을 입은 기결수는 앞 3자리에 앉아 있었고, 회색빛 빛 옷을 입은 미결수는 뒤에 앉아 있었으니 아마 어머니는 앞 어딘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생긴 분이 창가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제 소개를 듣고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나이 또래가 많이 계셨으니, 제 소개를 들으며 각자의 아들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그렇게 저도 어머니가 앉아 계시리라 느끼며 진심으로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정대철 회장은 예배가 무척 은혜로웠다고 옆에 함께 걸으시는 안현수 목사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 사모님, 참 좋은 분인데, 저도 탄원서 하나 쓸게요. 법무부장관이 안 볼지도 모르지만 밀쳐야 본전이지."

너무나 호탕하신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 내내 울다가 드디어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감사하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자료를 바로 사무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대법 상고시 대법관에게 47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일주일 만에 쓰셨습니다. 그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아 바로 프린트해서 정 회장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줄 많은 분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단한 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며 탄원서를 써줄 그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는 거잖아! 그래, 할 수 있어! 할 거야! 그러면 끝을 보겠지!"

글 / 이성일 목사

탄원서 보낼 곳 : 경기 가평군 정평면 큰갈월로226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전화 031-582-0191

팩스 031-585-7099, 031-582-0199, 02-365-9104



(사진) 안현수목사님의 교정사역 동행



▲ 가평 이화원 야외예배



▲ 가평 이화원 야외예배



▲ 가평 이화원 야외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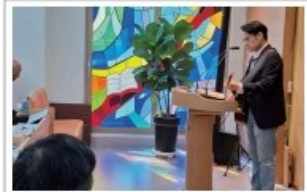
▲ 성경1독사상



▲ 성경1독사상



▲ 소그룹모임



▲ 예배



▲ 예배



▲ 원직외신



▲ 전도복합14기개강예배



▲ 전도복합수업시간



▲ 캘리그라피사진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소중하신사람들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배오경(매암4기) - 1상 신약 임상연구 참여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순차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2주에 한 번씩 병원 방문할 때마다 암이 더 작아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2. 임오국(임파질암4기) - 불면증 8년 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목, 허리, 고관절, 무릎 정상으로 뿔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CT, FCT 검사 결과알레르기 가려 사멸되어서 2개월에 한 번씩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치료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이오진(신소암4기 림프전이) - 영과 육이 고통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안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뇌경색 중증장애인 암의 굵고 내려앉은 척추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연니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4. 강오영(삼중염색 유방암, 뇌전이) - 젤라다로 항암 중에 있는데 부작용(울렁증, 구토증)을 없애주시고 복용할 때 마다 치료의 광선을 만 배나 더하여 주시 암세포들 모두 사멸시켜 주옵소서. 4월에 있는 뇌종양을 수술하지 않고 제거해 주옵소서
5. 서오순(유방암) - 3/3월 검진결과 오른쪽 유방에 있는 암이 커졌고, 당도가 생겨 4/8일 두 검사 모두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치료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드리며 모든 암세포가 제 몸에서 사멸되고 완전히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 장오길(홍선암) - 흉막과 폐에 있는 결절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7. 최오진(자궁내막암4기) - 한 달에 한 번 CT를 통해 폐를 관찰할 때 폐에 있는 결절 2개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8. 추오석(병광암, 폐암) -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9. 이오욱(유방암,홍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 육에 늘 임재 하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의 인사를 살게 하옵소서
10. 오오순(대장암,간전이) - 남은 항암 자금처럼 잘하게 해주시고 영, 육의 치료자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11. 김오중(담낭암) -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치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환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12. 박오숙(담도암) - 모든 잔존 암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사멸시켜 주옵소서
13. 남오범(위암) - 항암치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골수기능(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적혈구등)이 정상수치가 되도록, 항암부작용 특히 토하는 것과 메스꺼움을 잘 이겨내기도 기도합니다.
14. 장오린(다발성골수종) - 턱뼈 괴사 된 부분을 수술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한 새 뼈와 골수로 채워주시옵소서
15. 황오자(매암4기) - 4/28일 MRI, CT 검사에서 조금 붙어 있는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총살할 수 있도록 영,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6. 김오데(병광암, 폐막, 골반전이) - 항상 형태, 자매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암으로 인한 고통, 환난의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 성숙 되 어지는 시간되길 원합니다.
17. 김오금(담낭암) - 표적항암으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여주소서
18. 송오수(위암) - 4/1, 4/7, 4/14, 4/28일 병의 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 되게 하소서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고 림프전이 된 것도 깨끗해져서 2026년 완전관해 되고 완치되게 하소서
19. 박오현(위암) - 하나님이 보호하시 질병의 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갑시다. 전이 재발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20. 정오숙(유방암) - 젤라다가 내게 잘맞아 암이 재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부작용(부종, 손발 물집, 무기력, 어지럼증)회소화하고 효과는 최대로 발휘하게 하옵소서
21. 전오욱(유방암) - 감상선 결절이 완전히 소멸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22. 김오세(췌장암,전립선암) - 췌장암과 전립선암(도사탁셀)을 4주 간격으로 항암을 계속합니다. 내성이 생가지 않고 부작용(속이 상하게 울렁거림)도 같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약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2026년 3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병식(100,000) 남중범(20,000) 신은철(20,000) 오분순(300,000) 임종국(1,300,000) 전두희(50,000) 최영자(300,000) 최정미(100,000)
 충성(100,000) 확장헌금(50,000)

●목적헌금●

조은래(7,442,072)

●천사헌금●

최예진(1,000,000) 전정욱(1,000,000) 강산영(1,000,000)

●심일조●

강모승(50,000) 김예중(50,000) 김홍덕(160,000) 박갑진(259,000) 박선민(130,000) 박용범(460,000) 배윤경(98,000) 변영미(500,000)
 손을선(200,000) 심윤화(460,000) 윤두경(300,000) 이상일(300,000) 정소녀(150,000) 최영자(140,000) 최은희(200,000)

●주일헌금●

서미순(50,000) 박문숙(10,000)

●감사헌금●

SUNGHAI(200,000) 강금숙(10,000) 강산애(100,000) 강신영(400,000) 고선하(30,000) 공은영(100,000) 구남진(200,000) 구독자(100,000)
 구민정(20,000) 구숙희(500,000) 권오성(100,000) 김보영(100,000) 권정옥(100,000) 김덕용(50,000) 김명석(50,000) 김미화(250,000)
 김병식(450,000) 김상수(50,000) 김순금(1,10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예중(150,000) 김외숙(100,000) 김춘화(35,000)
 김현순(30,000) 김혜은(20,000) 김혜정(20,000) 김효숙(150,000) 김홍덕(700,000) 김희자(50,000) 남승범(300,000) 노현숙(145,000)
 류병환(100,000) 목장수(20,000) 우영(50,000) 문병숙(20,000) 박광숙(100,000) 박문숙(650,000) 박문숙친구들(100,000) 박봉희(200,000)
 박선민(140,000) 박성희(300,000) 박재숙(10,000) 박정숙(20,000) 박지현(150,000) 박진숙(20,000) 배윤경(500,000) 백미경(100,000)
 백인아(10,000) 백현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미순(60,000) 서예지(100,000) 소한태(10,000) 손을선(50,000)
 송영수(210,000) 신소희(150,000) 신현정(450,000) 신현정(350,000) 신혜정(10,000) 심태영(200,000) 안금옥(50,000) 안영모(100,000)
 양경임(50,000) 연영희(20,000) 염애식(10,000) 평상백(평상헌금)(100,000) 오분순(306,000) 오임순(20,000) 윤성근(50,000) 이금순(50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필(100,000) 이양복(10,000) 이은광(30,000) 이혜숙(50,000) 이혜옥(520,000) 이희진(25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종국(1,200,000) 장혜란(130,000) 전정옥(250,000) 정동익(30,000) 정숙(50,000) 정이연(50,000)
 정중순(500,000) 정찬길(150,000) 정태웅(300,000) 조옥선(10,000) 조영덕(100,000) 조홍제(2,015,691) 주용옥(50,000) 최예진(100,000)
 최영자(50,000) 최영희(10,000) 최은선(50,000) 추종식(600,000) 충성(100,000) 한창식(300,000) 한혜정(20,000) 현성원(50,000)
 황명자(100,000) 황보순(100,000) 황순갑(5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재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권오성의원(100,000) 늘기쁨교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소망교회사랑나눔부(300,000) 중주양문교회하나전교회(1,000,000) (사)토탈이엔씨(100,000) 두벨브(200,000)

●정기후원금(CMS)●

강지수(10,000) 공은영(30,000) 권태준(10,000) 김미화(20,000) 김성자(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완돈(30,000) 김운집(30,000) 김민경(50,000) 김조(15,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효진(100,000) 나일주(100,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희(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정(10,000) 박영자(20,000) 박원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필(10,000) 성인숙(250,000) 송필례(30,000) 양운정(100,000) 오선희(50,000) 유미형(10,000)
 윤성복(50,000) 윤인초(10,000) 윤종순(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인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귀례(1,00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선옥(1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장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은경(20,000) 정일금(1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숙(10,000)
 조영실(40,000) 조재성(1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일(2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한선주(20,000) 허경순(50,000) 홍금주(10,000) 홍근기(50,000) 황춘화(20,000)

청평힐링센터 2026년 3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442,072	자동차 주유비 및 윤영비	1,200,142
천사헌금	3,000,000	자동차 합부금 및 보험료	1,913,008
확장소망헌금	2,340,000	식자재구입비	8,686,130
심일조	3,457,000	전기요금	5,703,140
감사헌금	19,331,691	합산보험료	1,762,630
CMS헌금	4,030,000	LPG가스요금	595,200
주일헌금	60,000	안전관리비	419,000
기관후원	2,300,000	집기구입비	1,287,900
		급여인건비	17,149,550
		우편발송비	271,650
금월 수입 합계	41,960,763	지출 총액	38,988,350
전월 이월금	-4,292,908		
총 수입 합계	37,667,855	금월 잔액	-1,320,495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희(50,000) 전두희(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2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재정(80,000) 박승호(100,000) 오분순(2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이혜옥(2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00,000)
 3월: 임종국(1,300,000) 최영자(300,000) 오분순(300,000) 남중범(20,000) 충성(100,000) 확장헌금(50,000) 김병식(100,000) 전두희(50,000) 신은철(20,000) 최정미(100,000)

* 3월말 현재 총, 188,790,44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6년 3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오분순(250,000) 이성숙(20,000) 이순미(50,000) 한종석(200,000)

2026년 3월 소나무헌금 지출: 이○옥(820,120) 남○범(1,304,000) 박○숙(112,96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향,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7195-3045 이성일 목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3월 가입자 명단 (3명)

637 최재민 638 전정숙 639 김신영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옥	2	최미영	3	최희라	4	유재현	5	이영구	6	김수영	7	송준근	8	이해수	9	조주영	10	단영희	11	박현희	12	정동영	13	조혜진	14	정경익
15	이민영	16	박정혜	17	이희성	18	김연희	19	지유은	20	성민혜	21	박은희	22	박영미	23	박기현	24	박순희	25	이영희	26	정영희	27	김은희	28	김은희
29	김희정	30	송수영	31	김희정	32	윤정혜	33	김희정	34	이희정	35	김희정	36	김희정	37	김희정	38	김희정	39	김희정	40	김희정	41	김희정	42	김희정
43	송영옥	44	최희정	45	김희정	46	김희정	47	김희정	48	김희정	49	김희정	50	김희정	51	김희정	52	김희정	53	김희정	54	김희정	55	김희정	56	김희정
57	송영옥	58	김희정	59	김희정	60	김희정	61	김희정	62	김희정	63	김희정	64	김희정	65	김희정	66	김희정	67	김희정	68	김희정	69	김희정	70	김희정
71	김희정	72	김희정	73	김희정	74	김희정	75	김희정	76	김희정	77	김희정	78	김희정	79	김희정	80	김희정	81	김희정	82	김희정	83	김희정	84	김희정
85	김희정	86	김희정	87	김희정	88	김희정	89	김희정	90	김희정	91	김희정	92	김희정	93	김희정	94	김희정	95	김희정	96	김희정	97	김희정	98	김희정
99	김희정	100	김희정	101	김희정	102	김희정	103	김희정	104	김희정	105	김희정	106	김희정	107	김희정	108	김희정	109	김희정	110	김희정	111	김희정	112	김희정
113	김희정	114	김희정	115	김희정	116	김희정	117	김희정	118	김희정	119	김희정	120	김희정	121	김희정	122	김희정	123	김희정	124	김희정	125	김희정	126	김희정
127	김희정	128	김희정	129	김희정	130	김희정	131	김희정	132	김희정	133	김희정	134	김희정	135	김희정	136	김희정	137	김희정	138	김희정	139	김희정	140	김희정
141	김희정	142	김희정	143	김희정	144	김희정	145	김희정	146	김희정	147	김희정	148	김희정	149	김희정	150	김희정	151	김희정	152	김희정	153	김희정	154	김희정
155	김희정	156	김희정	157	김희정	158	김희정	159	김희정	160	김희정	161	김희정	162	김희정	163	김희정	164	김희정	165	김희정	166	김희정	167	김희정	168	김희정
169	김희정	170	김희정	171	김희정	172	김희정	173	김희정	174	김희정	175	김희정	176	김희정	177	김희정	178	김희정	179	김희정	180	김희정	181	김희정	182	김희정
183	김희정	184	김희정	185	김희정	186	김희정	187	김희정	188	김희정	189	김희정	190	김희정	191	김희정	192	김희정	193	김희정	194	김희정	195	김희정	196	김희정
197	김희정	198	김희정	199	김희정	200	김희정	201	김희정	202	김희정	203	김희정	204	김희정	205	김희정	206	김희정	207	김희정	208	김희정	209	김희정	210	김희정
211	김희정	212	김희정	213	김희정	214	김희정	215	김희정	216	김희정	217	김희정	218	김희정	219	김희정	220	김희정	221	김희정	222	김희정	223	김희정	224	김희정
225	김희정	226	김희정	227	김희정	228	김희정	229	김희정	230	김희정	231	김희정	232	김희정	233	김희정	234	김희정	235	김희정	236	김희정	237	김희정	238	김희정
239	김희정	240	김희정	241	김희정	242	김희정	243	김희정	244	김희정	245	김희정	246	김희정	247	김희정	248	김희정	249	김희정	250	김희정	251	김희정	252	김희정
253	김희정	254	김희정	255	김희정	256	김희정	257	김희정	258	김희정	259	김희정	260	김희정	261	김희정	262	김희정	263	김희정	264	김희정	265	김희정	266	김희정
267	김희정	268	김희정	269	김희정	270	김희정	271	김희정	272	김희정	273	김희정	274	김희정	275	김희정	276	김희정	277	김희정	278	김희정	279	김희정	280	김희정
281	김희정	282	김희정	283	김희정	284	김희정	285	김희정	286	김희정	287	김희정	288	김희정	289	김희정	290	김희정	291	김희정	292	김희정	293	김희정	294	김희정
295	김희정	296	김희정	297	김희정	298	김희정	299	김희정	300	김희정	301	김희정	302	김희정	303	김희정	304	김희정	305	김희정	306	김희정	307	김희정	308	김희정
309	김희정	310	김희정	311	김희정	312	김희정	313	김희정	314	김희정	315	김희정	316	김희정	317	김희정	318	김희정	319	김희정	320	김희정	321	김희정	322	김희정
323	김희정	324	김희정	325	김희정	326	김희정	327	김희정	328	김희정	329	김희정	330	김희정	331	김희정	332	김희정	333	김희정	334	김희정	335	김희정	336	김희정
337	김희정	338	김희정	339	김희정	340	김희정	341	김희정	342	김희정	343	김희정	344	김희정	345	김희정	346	김희정	347	김희정	348	김희정	349	김희정	350	김희정
351	김희정	352	김희정	353	김희정	354	김희정	355	김희정	356	김희정	357	김희정	358	김희정	359	김희정	360	김희정	361	김희정	362	김희정	363	김희정	364	김희정
365	김희정	366	김희정	367	김희정	368	김희정	369	김희정	370	김희정	371	김희정	372	김희정	373	김희정	374	김희정	375	김희정	376	김희정	377	김희정	378	김희정
379	김희정	380	김희정	381	김희정	382	김희정	383	김희정	384	김희정	385	김희정	386	김희정	387	김희정	388	김희정	389	김희정	390	김희정	391	김희정	392	김희정
393	김희정	394	김희정	395	김희정	396	김희정	397	김희정	398	김희정	399	김희정	400	김희정	401	김희정	402	김희정	403	김희정	404	김희정	405	김희정	406	김희정
407	김희정	408	김희정	409	김희정	410	김희정	411	김희정	412	김희정	413	김희정	414	김희정	415	김희정	416	김희정	417	김희정	418	김희정	419	김희정	420	김희정
421	김희정	422	김희정	423	김희정	424	김희정	425	김희정	426	김희정	427	김희정	428	김희정	429	김희정	430	김희정	431	김희정	432	김희정	433	김희정	434	김희정
435	김희정	436	김희정	437	김희정	438	김희정	439	김희정	440	김희정	441	김희정	442	김희정	443	김희정	444	김희정	445	김희정	446	김희정	447	김희정	448	김희정
449	김희정	450	김희정	451	김희정	452	김희정	453	김희정	454	김희정	455	김희정	456	김희정	457	김희정	458	김희정	459	김희정	460	김희정	461	김희정	462	김희정
463	김희정	464	김희정	465	김희정	466	김희정	467	김희정	468	김희정	469	김희정	470	김희정	471	김희정	472	김희정	473	김희정	474	김희정	475	김희정	476	김희정
477	김희정	478	김희정	479	김희정	480	김희정	481	김희정	482	김희정	483	김희정	484	김희정	485	김희정	486	김희정	487	김희정	488	김희정	489	김희정	490	김희정
491	김희정	492	김희정	493	김희정	494	김희정	495	김희정	496	김희정	497	김희정	498	김희정	499	김희정	500	김희정	501	김희정	502	김희정	503	김희정	504	김희정
505	김희정	506	김희정	507	김희정	508	김희정	509	김희정	510	김희정	511	김희정	512	김희정	513	김희정	514	김희정	515	김희정	516	김희정	517	김희정	518	김희정
519	김희정	520	김희정	521	김희정	522	김희정	523	김희정	524	김희정	525	김희정	526	김희정	527	김희정	528	김희정	529	김희정	530	김희정	531	김희정	532	김희정
533	김희정	534	김희정	535	김희정	536	김희정	537	김희정	538	김희정	539	김희정	540	김희정	541	김희정	542	김희정	543	김희정	544	김희정	545	김희정	546	김희정
547	김희정	548	김희정	549	김희정	550	김희정	551	김희정	552	김희정	553	김희정	554	김희정	555	김희정	556	김희정	557	김희정	558	김희정	559	김희정	560	김희정
561	김희정	562	김희정	563	김희정	564	김희정	565	김희정	566	김희정	567	김희정	568	김희정	569	김희정	570	김희정	571	김희정	572	김희정	573	김희정	574	김희정
575	김희정	576	김희정	577	김희정	578	김희정	579	김희정	580	김희정	581	김희정	582	김희정	583	김희정	584	김희정	585	김희정	586	김희정	587	김희정	588	김희정
589	김희정	590	김희정	591	김희정	592	김희정	593	김희정	594	김희정	595	김희정	596	김희정	597	김희정	598	김희정	599	김희정	600	김희정	601	김희정	602	김희정
603	김희정	604	김희정	605	김희정	606	김희정	607	김희정	608	김희정	609	김희정	610	김희정	611	김희정	612	김희정	613	김희정	614	김희정	615	김희정	616	김희정
617	김희정	618	김희정	619	김희정	620	김희정	621	김희정	622	김희정	623	김희정	624	김희정	625	김희정	626	김희정	627	김희정	628	김희정	629	김희정	630	김희정
631	김희정	632	김희정	633	김희정	634	김희정	635	김희정	636	김희정	637	김희정	638	김희정	639	김희정	640	김희정	641	김희정	642	김희정	643	김희정	644	김희정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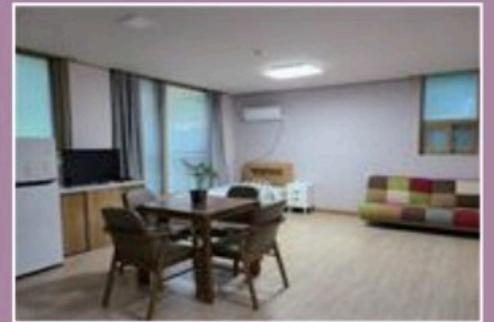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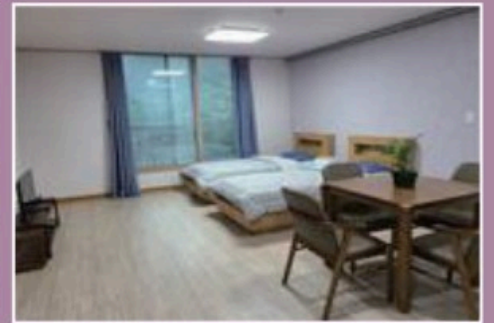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침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자 처럼 로템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침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예수 믿는 누구나 침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아이티 선교편지

봄의 생기가 넘쳐나고 혹한을 이겨낸 봄꽃들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이티의 봄은 언제나 오려는지요 지난 주일(3월29일) 저희 선교지에서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Jean-Denis, Pont-Benoit, Boisla-Ville, Descorder 4개 마을에 강들이 습격하여 대량 학살을 하였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죽어 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관료들도 없습니다. 시편 37:14-15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었뜨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이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선교지의 학교와 교회의 보호를 위하여도 기도하여 주세요. 저희 선교지에서는 지난 거의 2년, 강들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후원의 힘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언제 강들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주신 말씀처럼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난 1월에는 루빈에서 부흥회를 갖고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월에는 귀동에서 부흥회를 가지고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부활 주간에는 귀동교회가 4일, 루빈교회가 3일에 HOLY WEEK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가까이 있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부활주일 예배 후에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마을에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학교는 루빈초등학교 374명, 중학교(7th - 9th) 71명, 귀동초등학교 74명, 제배초등학교 52명 TOTAL 571명 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아이티의 사회전반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2. 루빈,귀동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3. 저희 부부의 성령충만과 건강을 위하여

유경민 재한 드림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han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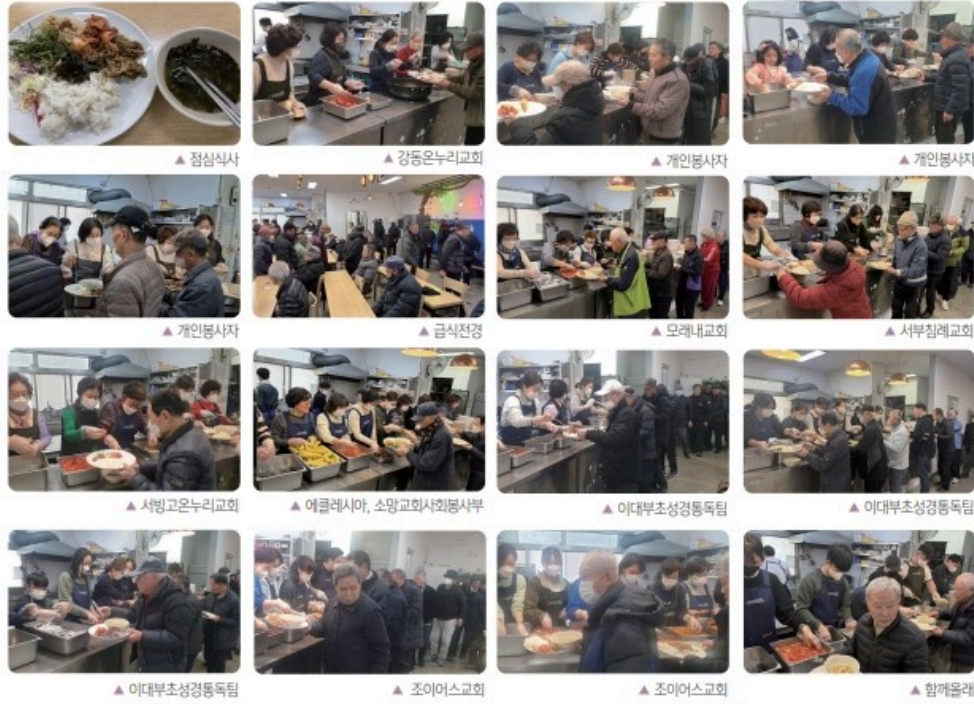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성일, 이주희, 김명옥, 박종수,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상훈, 최영하



소중한사람들 교회



▲ 점심식사 ▲ 강동은누리교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금식전경 ▲ 모래내교회 ▲ 서부침례교회
 ▲ 서빙고은누리교회 ▲ 에글레시아, 소망교회사회봉사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조이어스교회 ▲ 조이어스교회 ▲ 함께올라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2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1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3,17,24,31일), 서부침례교회(7일), 조이어스교회(12일), 에글레시아(14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14일), 서빙고은누리교회(17일), 함께올라(21일), 강동은누리교회(27일), 모래내교회(28일)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강하순, 권경희, 권미조, 김영옥, 박대근, 박봉희, 박진희, 송경옥, 손수정,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향자, 임운엽, 전두희, 조희진, 최경희, 최금연,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청만, 한승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중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상용, 주일 이상일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3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102회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3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상 23-31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사람들 서울 노숙인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2. 소중한사람들 청평 임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임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하,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이해옥, 배운경, 김흥덕, 김순국, 임종국, 이희진, 오분순, 송영수, 강신영, 박지현, 서미순, 정준순, 김예중, 정찬길, 남승범, 박문숙, 장혜란, 정정옥, 김병식, 추중석, 황영자, 최애진 인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태, 김현중, 최은희, 이해숙, 김민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연, 김형식, 권우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다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 근육수축증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4935-2445<문자로>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반응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일락이 참 향기롭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건물 앞에는 라일락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봄이 되면 분홍빛 꽃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무슨 꽃인지 궁금해합니다. 향기에 이끌려 다가온 이들은 라일락꽃에 코를 땁니다. 열에 아홉은 눈을 감고 향기를 맡습니다. 왜 눈을 감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잠시 멈춰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름답게 핀 꽃가지를 꺾어 가는 짓곳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일락 나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라일락 나무는 '소중한사람들'과 참 닮았습니다. 이곳도 라일락 나무처럼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향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집니다. 특히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갖지은 밥 냄새가 참 좋습니다. 반년 가까이하기 어려운 노숙인의 체취도 섞여 납니다. 매일 60~90여 명의 노숙인과 10~20여 명의 봉사자가 저마다의 향기에 이끌려 이곳을 찾습니다. 노숙인의 향기에 이끌려 또 다른 노숙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노숙인을 공유했던 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봉사자들이 오기도 합니다. 소중한사람들에 모인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 눈은 감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최근 푸드뱅크 협업이 끝나 이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직접 빵을 사야 합니다. 평일 노숙인들에게 드릴 빵과 주일 서울역 광장 전도에 쓸 빵을 사려니,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빌립처럼 믿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200테나리온, 아니 2000테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 지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익명의 후원자가 오셔서 힘내라며 후원금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반년 치 빵값이었습니다.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제가 두려워할까 봐 미리 결제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노숙인 중 한 명은 막노동으로 번 월급의 상당 부분을 현금했습니다. 은행에서 뺏긴 새 돈으로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는 이 현금을 드리기 위해 또 한 달을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며 행복했습니다. 푸드뱅크 협업 종료 소식에 정기 후원을 늘려주신 분도 계시고, 사정이 어려워져 후원을 끊게 되었다며 미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랜 동안의 헌신만으로도 이미 넘치고 충분한데 왜 미안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말주변이 없어 우물쭈물하다 전화를 끊고는, 뒤늦게나마 하나님께서 그분께 실제적인 도움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귀한 헌신으로 마련한 빵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하나 더 달라며 짓궂게 행동하는 노숙인에게 넉넉하게 더 줘서 기쁨을 나눕니다. 빵을 반으로 갈라보니 단팥이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가 좋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나 감사해 흐르는 눈물을 눈꺼풀이 다 가두지 못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토록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값어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명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 환우 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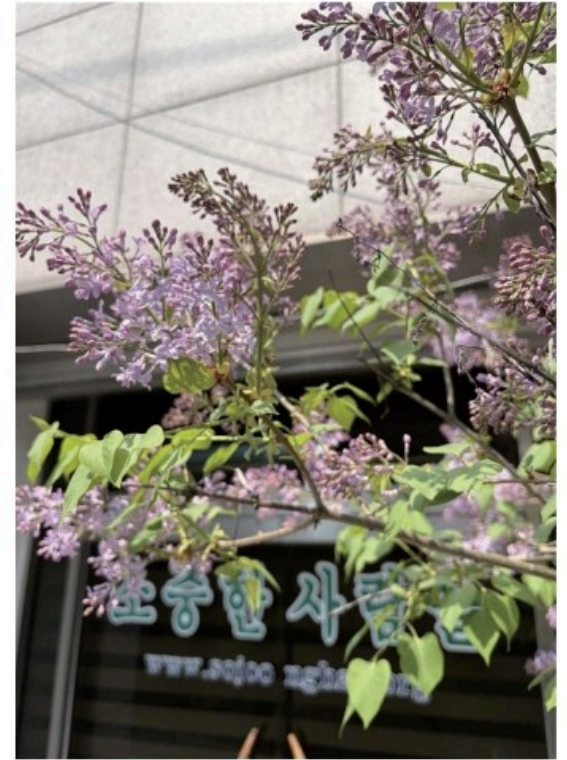
이혜옥,배운경,김흥덕,김순금,임종국,이희진,오분순,송영수,강신영,박지현,서미수,정중순,김예중,정찬길,남승범,박문숙,장혜란,전정옥,김병식,추종석,황명자,최애진

정명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명단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산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추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6년 3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2026년 월 03일 ~ 3월 31일까지)

강금내(50,000)	강도숙(10,000)	강연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현(1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고건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혜애(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영아(10,000)	권혁선(10,000)	김경리(1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행(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미화2(20,000)	김민경(30,000)	김민실(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향(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민(1,000)	김영옥(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용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기(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정(80,000)	김정화(20,000)	김종력(10,000)	김종희(1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애(5,000)
김창영(10,000)	김천달(20,000)	김태조(10,000)	김한나(5,000)	김향순(5,000)	김한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련(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진(강원도)(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주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현(10,000)	류효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운(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연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음미)(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서기준(10,000)	서혜린(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범(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현경(10,000)	손현미(5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30,000)	신승우(40,000)	신영주(10,000)	신유은(10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애(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완(10,000)	윤용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희(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경희(50,000)	이금미(10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섭(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은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상중(50,000)	이상진(2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상순(10,000)	이상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3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애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윤미(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의신(10,000)	이의희(10,000)	이인용(20,000)	이재영(백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3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윤엽(50,000)	임정화(10,000)	임혜순(30,000)	장국영(50,000)	장미현(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해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2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혜(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서원(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재필(20,000)
황정희(10,000)	홍주연(2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 팩스 031-582-0199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1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안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